

해피밀 시즌 4-1호를 발간하며, 스승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보길 소망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난 스승들을 떠올려 봅니다.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해주셨던 목사님, 늘 친절히 해주시던 주일학교 선생님, 가정에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셨던 부모님 등 많은 분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동시에 그분들의 가르침 덕에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스승과 제자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멋진 하모니를 담고 있는 본문은 사도행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헌신적인 삶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성품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그다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여전히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제자를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평생토록 힘을 다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도행전만큼 스승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순종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성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해피밀 시즌4는 바로 그 사도행전과 함께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완주했던 믿음의 여정을 걸어보려 합니다. 부디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이신 그리스도께 복음을 배우고 선배들의 사역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5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Paul Jung'.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사도 바울의 절친한 동역자 '누가'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데오빌로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중요한 서신의 수신자인 반면에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꽤 높은 고위직 관료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로마의 지적 중산층에 속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인물이라는 점 외에는 별다른 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즉 성경적 관점에서 그의 정체는 우리의 궁금증에 비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 데오빌로'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도 알 수 없는 데오빌로를 위해 누가 쓴 편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 2편의 편지를 썼는데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문학세계에서 헌정사를 바치는 것이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 <아피온에 대항하여>라는 유대 신앙 변증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책도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2권의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요세푸스는 이러한 두 작품의 헌정사를 동일한 인물에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책의 내용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직접 전하시던 것에서,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배운 제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라는 점이 누가복음과 다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승천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 증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복음이 쉬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달하였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헌신도 멈출 수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서 잠시 이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사도행전은 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상황을 겪었으나 다시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제자들의 이야기, 그들을 회복시킨 원동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는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30년의 기록이 담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특출남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이방인 의사 '누가'가 유대인 출신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워,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이토록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사도행전 목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줄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과 내용으로 전하셨습니까?

Q. 복음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헌신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우리의 헛된 기대를 덮으시는 주님의 온전한 계획**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방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줄 선지자, 거룩한 대제사장의 부재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영역에서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구성된 그분의 제자들이 갖는 공통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왕이 되셔서 이 나라의 해방을 이루시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제자들은 국가적 해방을 무척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곧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참으로 단호함이 느껴지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토록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20세기 저명한 설교자 존 스토틀는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대답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이며 민족적 왕국의 즉각적 회복을 바랐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이며 세계적 왕국의 점진적 회복을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주제 앞에서도 이토록 다른 해석을 보이니, 둘의 본질적인 차이는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삶을 무너뜨리던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회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공동체적 회복"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회복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더없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도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께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대와 간구를 멈춰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일상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도 점점 세속적인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었던 그 무엇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을, 우리는 이미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고통이 언제까지나고 묻고 따지기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며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의 모든 것을 채운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꿈꾸는 일차원적 회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헛된 기대를 덮으실 정도로 광대하고 온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대들을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 삶의 기도 제목이나 바람 속에는 '나 중심'의 회복이 자리잡고 있지는 않나요?

Q. 복음 안에서 비로소 바랄 수 있게 되는 회복은 무엇인가요?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우리는 여전히 땅에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구름이 그분을 가리었습니다. 이를 두고 저명한 학자 패트릭 슈라이너는 **"예수님이 즉위하는 모습"**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영원한 왕이 되어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보고도 제자들의 반응은 무척 미온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말입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놀라운 것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자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2~3명의 성인 남성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등장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인하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정확한 정체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흰 옷 입은 두 사람의 정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대로 헌신하는 일 등 증인의 삶을 쉽게 "남에게" 전가하진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나태한 채 살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이 좋아서, 그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몰두하고, 공동체적인 생활은 기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볼 수 있겠으나, 우리의 두 발은 땅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왕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설령 어려움이 찾아와도 진리를 선포함에 게으르지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왕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제자들처럼 하늘만 바라보았던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우리의 두 발은 여전히 땅에 있습니다. 내가 주저했던 헌신은 무엇이며, 복음 전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2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믿음 안에서 갖는 한마음

어제 우리는 잠시나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했던 제자들이 정말 멋지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때 13절에서는 그들이 다락방에서 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 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나누었던 바로 그 방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 무리에는 많은 여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문화적 구조로 볼 때 흔한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증인으로도 인정해 주지 않을 정도로 성차별적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남녀가 함께 모여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끼리도 함께 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유대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세리(천로마 성향)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국내 정치 상황을 생각할 때,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정치적 이념을 뒤로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에 압제를 당하던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두 그룹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두신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함께 모여 교제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도리어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서로 한마음 한뜻을 품었습니다. 사실 나와 비슷한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은 사람들과 한마음을 품는 일은 무척 피곤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어서, 남들이 자기에게 더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을 주셨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믿음도 선물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변화되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말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한마음을 품기는커녕 한 순간도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주님은 그런 제자들,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15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 형제들아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 (이 사람이 불의의 값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19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렸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1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옮겨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24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원 목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던 자리에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에는 2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배신은 성경 말씀(시편 41:9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의 성취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직무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도 말씀의 성취이므로 새로운 사람을 뽑자는 것이었습니다(시 109:8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즉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뤄진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십니다. 유다의 배신을 아셨기에 그의 자리가 채워질 것을 계획하셨고 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먼저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했던 나의 무력함이나 부족함 등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갖게 합니다. 또한 내 뜻보다 더욱 많이 얻고 성취했던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통해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함께 했던 동료의 배신으로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배신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리더를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방법으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으며, 그들의 공동체를 와해시켰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에게 무척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커다란 상처조차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또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한 맛디아가 12사도의 무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괴로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진행되고 있음을 신뢰합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Q.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회복의 은혜를 구해봅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사도행전 1장 4-8절을 필사하고 암송해봅시다. (청소년, 청년용)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암송 확인: 부모님 쓰인 (김동완 목사에게 확인 받으러 오세요!)

2. 자녀들과 함께 아래의 질문들을 나눠봅시다.

1)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지난 중간 고사를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 친구와 겪고 있는 갈등의 해결 등 말입니다. 한번 나눠봅시다.

2)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구해야 할까요?

3)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임을 믿고 있나요? 그런 사람이 해야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3.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어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대표자의 대표기도로 마무리)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홀연히 임한 은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순절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에선 이 날을 칠절절 혹은 초실절로 부르며, 봄철의 곡식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매년 이때 성인 남자들은 성전으로 순례해서 가야 하는 절기 중 하나였기 때문에, 5절 말씀에서 언급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본분을 기억하면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2절). ‘홀연히’라는 단어는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을 뜻합니다. 이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성령세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던 그 역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셨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열방을 다시금 하나로 모으시며 회복하실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과 하나 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꾸준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제목이 홀연히 응답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Q. 하나님은 늘 가장 적합한 시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나 하며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해피 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복음에 대한 반응**

오늘 본문에선 성령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천하 각국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경건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이유로 놀랍니다. 먼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헬라어를 간신히 구사할 수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한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이 전하는 내용에 매우 놀랍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들이 들었던 내용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 복음입니다.

이처럼 성령강림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지혜를 통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내용과 언어로 전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업신여기며 조롱하였습니다(13).

이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 듣는 자들의 두 가지 반응을 예고합니다. 이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 앞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모자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에, 우리는 그저 성령 충만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 됩니다.

해피 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해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Q.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있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씨를 뿌리는 것이며,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사람을 변화시킨 성령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천하 각국의 언어로 큰일을 말하였고, 그 놀라운 일을 지켜보던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서서 이 모든 일은 성경 말씀에 성취이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사건 전과 후가 매우 놀라게 달라졌음을 말씀합니다. 이전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전하셨던 말씀도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을 두려워 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후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에 그가 이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것을 숨겼더라면, 이제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비로소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담대하게 복음을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며, 주님을 알지 못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해야 하는 말을 그 입에 넣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현장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며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최소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묵상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베드로는 성령 충만 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후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Q.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마주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해피 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마음의 찢림과 회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3,000명이 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께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마음에 찢림이 있었습니다(37절). 마음이 찢린 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업신여기고 조롱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들은 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용서받을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꺼이 순종할 태도를 취하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사모해야 할 기적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마음이 찢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여 역사하십니다. 만약 베드로가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은 패역한 세대에 발생하였습니다. 패역한 세대란 사악한 세대 또는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심지어 조롱하고 모욕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찌들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꼭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자들의 가치관에도 침투하여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찢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캐치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찢리는 것으로 멈추고 말씀이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밭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망각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해피 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고나서 마음에 찢림이 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찢림이 회개로 이어졌나요?

Q. 마음에 찢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해피 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표본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탄생한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심을 다 했습니다(42절).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과 선포하신 말씀이며, 특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기적과 신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열심히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즉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일,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44-46절). 그러나 단순한 친목 교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천국과도 같은 모습을 이들은 세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요구합니다(45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십이나 계획 없이 섬기고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떡을 떼다는 표현은 서로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지만, 또한 성찬식을 진행하며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과 기도는 늘 병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도 늘 기도하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47절 말씀을 보면 온 성도가 기도한다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기도하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보다는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혹은 '주옵소서'라는 비중이 혹여나 더 높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불평과 원망은 줄어들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 되고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해피 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Q.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소망하며 세워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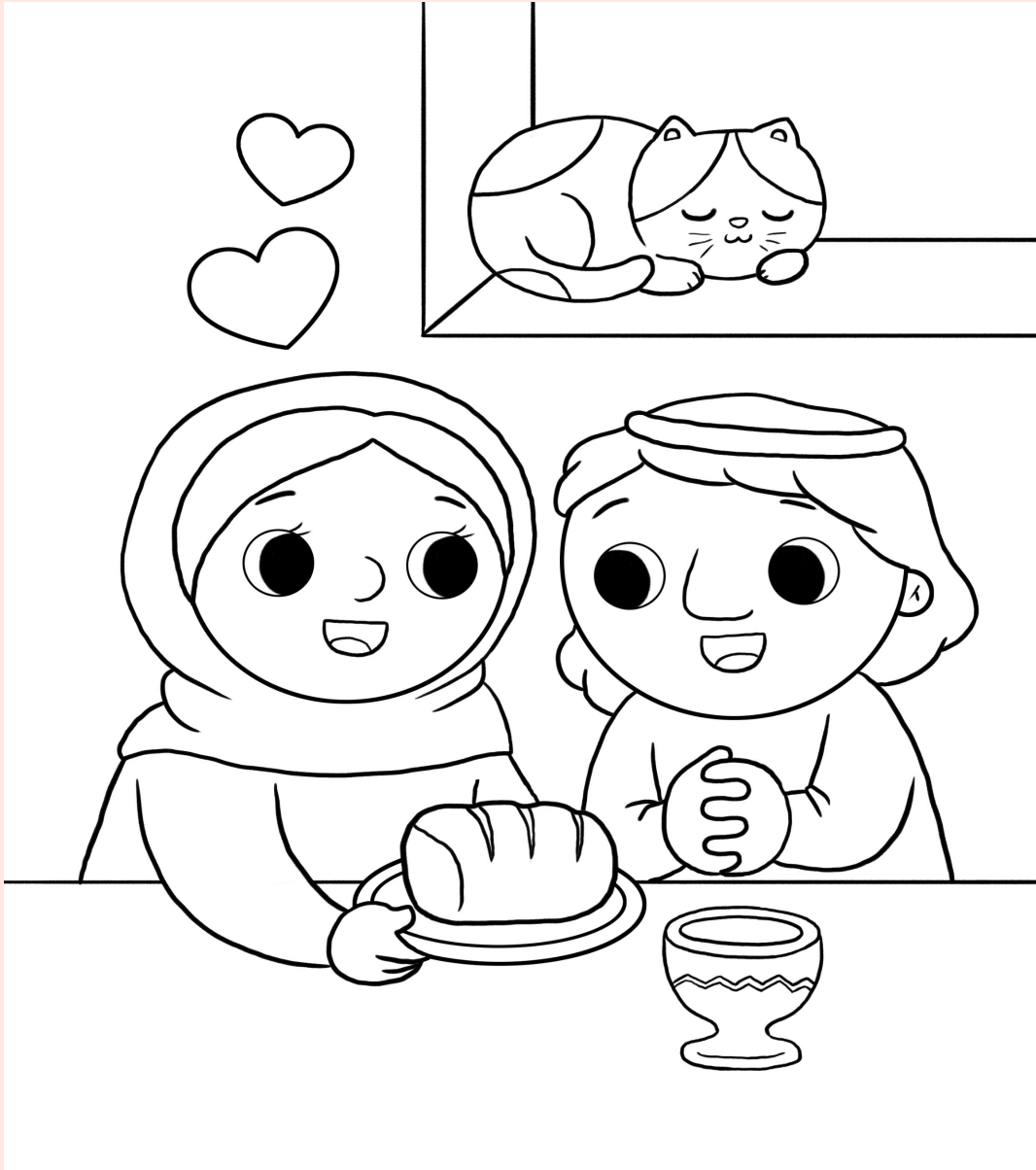
2025년 5월 31일(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색칠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전도서 2장 41-47절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나누는 교회를 통해 전파돼요!



1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
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
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우리가 가진 것**

교황 이노센트 2세가 집권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황은 거액의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교황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황은 아퀴나스를 보며 "토마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교황). 그러나,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6절 말씀에 나타나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고백입니다. 이제 갓 태어나 가장 순수하게 심장이 고동치는 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 공동체의 유일한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범주 안에 우리는 모임으로써 교회를 대입할 수 이것이고, 또한 성령의 전이 주어진 우리 각 사람을 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부산물들이 끼어들어옵니다. 때론 그러한 것에 마음이 끌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게 됩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중세교회는 권력과 명예욕과 수많은 잡다한 것이 끼어들어와 진정한 본질을 놓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나 인생에서나 본질을 찾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붙들면 됩니다. 답을 놓친 인생길이 다가와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됩니다. 교회 사역의 철학과 중심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생명입니다. 또한 그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앓은병이가 일어나며,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오. 곧, 그 가르침에 따라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에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내 삶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Q. 지금 나의 삶에 처한 상황 속 예수님 더욱 필요함을 고백해봅시다.

11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요한은 15절 말씀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에 증인"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참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에는 이러한 죽은 자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앓은뱅이가 일어난 것은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건 중 하나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 앓은뱅이가 일어난 것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사 일으키시는 역사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권능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부활의 권능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가 가진 권능은 매우 놀랍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능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적합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 예수님이며, 그분을 부활하신 것도 자신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지혜, 그들이 들을 때 명징하게 들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나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요?

Q.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웃의 이름을 적어보고,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 지혜를 구해보세요.

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번역의 어려움

번역가들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는 온전한 번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단어의 쓰임과 뉘앙스가 다르고, 같은 단어라고 해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르니, 사실 온전한 번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라고 할 때,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먼저 좁은 수로를 지나다니는 작은 배를 생각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 강국답게 커다란 유조선들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 단어에 대한 문화적 차이, 시대적 차이 심지어 세대적 차이가 있으니 온전한 번역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미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고, 개인이 가진 감정과 경험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달하는 숙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곧 복음의 말씀이며, 그 중추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을 본 적은 전무했을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관도 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대한 각 사람의 인식도 달랐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절 말씀처럼 "들은 사람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부활의 의미가 각 사람에게 전하여져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온전한 의미전달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온전한 번역, 전달이 어려운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와 시대와 세대의 차이를 넘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천명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이해와 지식 속에서 말씀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조아리고 자기 부인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최근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Q.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5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9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복음을 체포될 수 없음**

수많은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치적, 세속적 권력은 막강합니다. 두 사도를 밤새도록 옥에 가둬둘 수 있었고, 그들을 몰아붙여서 광장 중간에 세워 심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만 본다면 사도들은 세상에 에워싸워 어떤 힘과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과 또 세상의 막강한 권력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사로잡히고 에워싸이며 패색이 짙어 보입니다.

존 스토틀 목사는 이 장면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도들은 체포할 수 있었지만 복음은 체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에워싸고 사로잡으며 멸시와 박해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증명되어 왔습니다. 박해 가운데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그 속에 있는 복음은 더욱 베풀어져 날 서게 빛나는 모습은 늘 증명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명하고, 약하며, 가난하며, 헐벗은 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날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체포될지언정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체포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체포될 수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합니다.. "...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11절)"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박해를 당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정수와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늘 새롭고 더욱 강하게 붙들어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결코 체포될 수 없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Q.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나누어주세요.

성경읽기

2025년 6월 6일 (금)
사도행전 4장 13-17절

13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5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해피 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그리스도인의 품격

수사학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을 보면, 멋있게 말하기라는 파트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말하는 그것이 사람의 품위와 됃됨이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확실히 우리 주변에 멋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급언어를 구사하고 어려운 단어를 자유자재로 말하는 그들을 보면 제법 멋있고 뭔가 영향력과 힘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 그리고 그 품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변이 제법 논리적이었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그 확신에 찬 어조와 용기가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못 배운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출신입니다. 확실히 그 종교지도자들보다 체계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수사적 변론과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총독과 임금 고관들 앞에서 '말씀하시느 이'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10:18-20). 즉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이 멋진 행동, 그들이 보인 영향력과 언변의 능력과 품위는 '성령님'으로 온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품위는 그들이 가진 말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종교지도자들은 일어난 기적, 곧 앓은뱅이가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곧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해피 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품격을 어떻게 드러내고자 하시나요?

Q.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말하고 증언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누어주세요.

2025년 6월 7일(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읽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사도행전 4장 1-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2) BINGO! 빙고타임! 사도행전 4장 1-17절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를 골라 3x3 빙고를 완성해보세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그리스도인의 품격

1. 6월 6일 해피밀을 읽고 가정에서 나눌 말씀을 준비해주세요.
2. 부모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며 경험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나누어 주세요.
3. 내 삶에 일어난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여 주세요.
4. 부모님께서 기도문을 준비하셔서 가정예배 후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18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22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진짜 vs 가짜**

예나 지금이나 사기꾼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좋지 못한 물건임이 확실하지만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가 걸려 넘어질까 하는데 어느새 내가 속아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지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들의 확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확신의 근거인 물건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과 그들의 물건은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떨까요? 그들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그들은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20절)은 진짜였습니다. 그것은 능력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건지 못하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걷고, 뛰게 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5000명(사도행전에서)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인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을 찾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가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들은 생명을 죽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참 생명을 얻고 소망과 기쁨,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십니다. 불확실한 오늘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시고 확신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확신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말과 행동에 확신이 있나요? 어떤 확신이 있나요?

Q.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확신과 소망을 더합니다. 주님을 전하세요!

23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위기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위기에 처할 때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피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쏟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금지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은 분노하고,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부수고 폭력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빚어가실 것들을 신뢰했습니다. 기도의 구조들을 보면 그것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바로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복음과 그의 제자들을 멈춰 서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여기서 “분노”라는 단어는 “잘 먹고 원기가 충만한 말들의 울음소리”를 두고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말들의 원기가 아무리 충만해도 그저 재갈에 물린 말일 뿐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모든 것이 무너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아파트 청약, 건강, 자녀의 성공입니까? 이런 고백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순서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리해야 올바른 기도들로 정렬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요즘 나의 기도제목을 적어봅시다.

Q. 나의 기도의 구성, 순서들은 어떤가요? 오늘의 본문과 비교 해봅시다.

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줄다리기를 할 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줄을 당깁니다. “영차”라는 추임새는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합니다. 각자 다른 마음, 각자 다른 호흡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추임새를 듣고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마음,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통용했습니다. 좋은 물건, 좋지 못한 물건, 쓰임새가 많은 물건, 저렴한 물건 상관없이 모든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과연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줄다리기의 “영차, 영차”와 같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머리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었기 때문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지역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고, 큰 뜻입니다. 그 마음과 뜻에 우리의 것을 맞추고 나누고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 소그룹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곳에 전해지고 있습니까? 모든 구성원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소견만 주장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부활(영차)”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부활”의 소리를 위해 몸부림칠 때 다른 사람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에 반응하고 감동받고, 탄식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소리를 위해 힘쓰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가 속한 공동체(가정, 소그룹, 교회)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Q. 지금 놓여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나요?

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1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이 많으면 더 헌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유가 많으면 헌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간혹 기부와 관련된 뉴스들을 접할 때 다양한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재벌, 운동선수, 연예인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길을 가다 모금함을 발견하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폐지를 주워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을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 헌금을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헌금을 드릴 마음입니다. 헌금을 드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인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밭을 팔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서 재미있는 것은 그의 출신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며 부유한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의 사촌인 마가의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사도행전 12장 12절). 동시에 그는 레위인으로서 밭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오경의 규율이 이때에는 유명무실한 문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부유한 배경에 있든, 자신의 전부인 밭(매장지)를 드렸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재물은 필요불가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드리느냐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물질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Q.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금액, 횟수 등)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현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2**

주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도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에 특출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렵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렵돈은 현재의 가치로 약 13000원입니다. 시급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두 렵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그 금액은 두 렵돈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액수가 적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현금을 주님께 드릴만한 것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현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앞서 칭찬받은 바나바를 보았습니다. 그가 사도들에게 내놓은 현금. 그를 보며 기뻐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도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현금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드릴 만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금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현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섬김, 헌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합니까? 겉으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현금, 봉사, 헌신, 예배,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실만한 것일까요?

Q.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2025년 5월 17일(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 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 7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 8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 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 10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평안교회
소개영상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